

오뚝이 정신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기수가 되자.

- 6기 전여대협 수련회 (7월 23 ~ 25일, 회비 15,000원)

1. 의의와 목표

- 1) 2000년 여학생운동 상반기를 총화하고 이후 더욱 힘찬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
- 2)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자주적 여학생운동가에 대한 확신의 자리.
- 3) 전국의 여학생일꾼이 모여 자주적 여학생일꾼이라는 자긍심을 쌓아 가는 자리.
- 4) 통일투쟁의 선봉 부대로 결의하며 통일선봉대 모범 따라 살아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
- 5) 수련회 개최 대학과 지역여대협의 운동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

2. 중심 기조

- 1) 상반기에 대한 울컾은 총화를 진행하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으로 여학생운동 대중화를 주체로부터 실현해 가는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 2) 이후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초석이 되는 자리로 한다. 상반기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묶어내고 총화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 3)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전민족 특별 조사위원회의 사업을 통해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과 그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반민족적이고 반여성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투쟁의 의지들을 높여가도록 합니다.
- 4) 성폭력의 문제를 다양하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총화하면서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도록 합니다.
- 5) 통일선봉대의 발대식을 통해 힘찬 통일투쟁을 결의하고 통일투쟁에 2000만 여성민중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연대투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3. 기치 해설

“오뚝이 정신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기수가 되자.”

오뚝이 정신으로 언제나 무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오뚝이 같은 여학생운동가가 되어 자신의 한 걸음을 이제 신나는 펄박질로 만들어, 선두로서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기수가 되자.

4. 일정

23일 일요일 (첫째 날)

- ~1600 장소로 집결
- ~1700 전체 수련회 사수 결의대회
- ~1800 저녁 먹기
- ~2100 비디오 보고 범민련 여성선생님과 간담회
- 이후~ 반미 통일 투쟁에 대한 토론 진행 (지역여대협별로 나누어서)
- 선전물 만들기

24일 월요일 (둘째 날)

- ~630 일어나서 씻는 것까지
- ~900 아침 운동, 선전전, 아침 먹기
- ~1200 자여론 강의, 새내기는 따로
- ~1300 점심 먹기
- ~1500 성폭력 상담 교육
- ~1830 몸 부대끼기(체육대회)
- ~1930 저녁 먹기,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공대위 모임
- ~2200 지위별 시간(상반기 주체 총화),
- 이후~

25일 화요일 (셋째 날)

- ~630 일어나서 씻기
- ~900 아침 운동, 선전전, 아침 먹기, 총화서 쓰기
- ~1000 실천 투쟁 결의 밝히기
- ~1100 용산 미군기지 앞으로 힘찬 투쟁
- 이후 각 지역과 대학으로....

5. 수련회기간 규율 및 혁신과제

- (1) 자신의 수련회속에서의 목표를 세워봅시다.
- (2) 수련회때 모든 활동에 주체적으로 임합니다.
빼거나 소극적인 모습은 여학생운동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학우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구현합니다.
- (3) 개인행동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방향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전체의 규율에 따릅니다.
- (4) 수련회 일정이 빠시더라도 불평하기보단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는 방향에서 피곤함이 있더라도 최대한 즐기 않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 (5) 옆에 있는 동지들을 잘 챙겨줍니다. 수련회가 끝났을쯤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는 끈끈한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6) 회비총화 및 내라는 것, 작성하자는 것 꼭 합니다.
- (7) 25일 대중투쟁에서 멋진 여학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6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2000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0.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대다수에 가까운 인류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여성문제라 할수 있다

여성문제는 시대별 지역별로 가족, 직업과 사회적 여건, 신분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그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는 정도는 상이하지만 대부분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별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인류의 역사발전과 더불어 그리고 근대화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에 의해 활발해 졌다.

서구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산주의권 나라 그리고 오랜기간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억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해당시기 풍미한 사상과 사회과학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해온다.

여성문제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그 본질해결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여성해방이론들이 도출되었으며 그것은 실천적인 여성들의 투쟁을 통하여 검증되고 실현되었다.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은 한반도 이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처지와 조건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여성을 규정하는 제모순들을 사회구조의 연관속에서 밝혀내고 그 근본원인을 바로 인식하며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해방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과 경로를 보여주는 이론을 이야기 한다. 안타깝게도 여성운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지금도 여전히 여성문제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해방이론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조건, 여성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그나라들만의 해방이론들이 존재하고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속에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이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억압과 고통 또한 서구 유럽과 공산주의 나라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간고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작업, 각 이론과 투쟁의 경험·교훈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한반도 이남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깊이 분석하고 그 해방이론을 우리 스스로 도출하고 실천하여 우리식의 여성운동을 만들어가야 하겠다.

기간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남 여성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하고 또한 자료나 경험의 축적이 많지 않으며 한국사회의 복잡함과 격동의 역사속에서 여성해방의 과제를 도출하고 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각고의 노력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학내에서 여성문제물 인식하고 사회변혁의 과제와 여성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이 먼저 등장하였고 실천적 조직으로 여학생회를 꾸려내었으며 꾸준히 이론을 풍부화하면서 여학우 대중을 근간한 여학생운동을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아직도 여학생운동에서 밝혀내어야 할 이론적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학우, 여성민중을 여학생회라는 대중을타리틀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 조직적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보태지고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기간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에서 밝혀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더욱 논의를 활성화해가면서 풍부화시켜 나가야 한다.

1. 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이론은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1)이남사회의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밝히고 있다

1)한국사회의 여성문제

모든운동은 모순에서 출발한다. 그러하기에 여학생(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겪는 모순에서 출발한다. 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겪는 모순(통칭하여 여성문제)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문제란 성을 매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 사회 학교등 제반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문제를 말한다. 한 성이 또다른 성을 억압하는 것이나/성별로 분리하여 차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한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단순히 몇몇의 사례뿐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삶 전체를 두루 살피며 그속에서 성의 억압과 착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남사회의 여성문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영역별로 살펴보자.

2)여성문제의 원인,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다.

여성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면 여성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며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구조)들이 있음을 알게된다. 여성문제는 인류초기 태어나면서 부터 당연히 가지게 되는 원죄가 아니라 힘에 의한 사람의 지배와 착취를 기반한 사회구조속에서 여성을 부차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자주적인 진출을 막아나섰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는 사회전반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여성의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고 여성역할을 규정하는 성별분업의 교착화에 그 억압의 근본을 두고 있다.

3)여성의 처지와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러한 여성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속에서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지배구조와 성별억압을 살펴 보도록하자

①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여성억압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

제 2차 세계 대전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한국은 미제에게 다시 강점당하고 사회의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됨으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은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다시 짓밟히게 되었다.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그의 식민지성은 한국사회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식민지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민족적 자주권의 상실은 곧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사회의 어느 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권력을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가 일제의 총독정치때와는 다른 간접적 통치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통치체제는 군통수권을 장악하는 현지지배체제와 겹보기에는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의 정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식민지 대리정

권으로 치장한 대리통치체계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에 충실한 대리정권을 세워 남한에 대한 자신의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많은 법, 제도, 기구들을 마련하고 계속 정권을 교체해가면서 자신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시켜왔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배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은 독립국가 의 물질적 기초이기에 경제적으로 예측된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예측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신식민지는 경제적 예측을 중요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을 강점한 미국은 저들의 식민지 통치에 유리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경제관계를 재편성 했다. 미국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급적 기반을 축성하기 위해 매관자본을 축성하고 농촌에서 봉건적인 지주 소작관계를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해 왔다.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경제는 자립성을 완전히 상실당하고 자본과 원자재, 설비와 기술, 시장 모두를 미국을 비롯한 외래 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식민지 하청경제로 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적 예측성에 바탕한 반식민지와는 달리 미국에게 군사전략적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군사적 예측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우선 한국에서 군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명령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군부에게서 통수권은 명줄이다. 바로 그 통수권을 권 자가 군대를 권자이며 군대를 권자가 정권까지 쥐게 된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상문화적 예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족자주정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식민지인가 아닌가를 가름해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민족자주정신이 민족적 독립의 사상적 초석인만큼 미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의식, 민족주체의식을 말살하고 외세의존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해 왔다. 한국사회의 의식구조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대굴종의식, 매국배족사상, 외래풍조의 사치스러움 속에서 민족문화와 미풍양속의 사멸등이 그것이다.

미국에게 완전히 예측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여성민중들의 삶은 어떠한가

첫째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은 주한미군의 성욕구충족의 대상이 되고 저질 퇴폐 향락 문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의 주한미군 범죄, 해방 이후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 후 한시도 주한미군의 범죄의 위협속에 편할 날이 없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다고 생각했던 주한미군들이 한반도 땅을 밟으면서 처음 했던 것이 술과 여자를 찾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의 땅에 버섯이 내국인 출입금지업소를 만들어놓고 부패타락한 제국주의의 성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포르노 비디오의 95%가 기지촌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이 포르노 비디오는 여성의 성을 인간의 아름다운 한부분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락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포르노 비디오은 시중에 유통되면서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흐리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상대로한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기지에서 몸을 팔면서 온갖 인간으로서의 참지 못할 억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식민지 종속국 여성으로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살지만 담기야 주한미군에게 살해까지 당하는 것이 지금 남한 여성민중의 현실이다.

윤금이세로부터 서정만씨에 이르기까지 거기다가 폭행 강간등의 경우까지 합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율은 1.1%에 불과하고 설사 형을 받았다고하더라도 호화로운 감방생활에 감형 가석방등으로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둘째, IMF의 충격흡수증 한반도 여성들, 일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상황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저열

한 근로조건, 승진과 승급 제한과 같은 성차별이었다. 하지만 요근래 몇해사이에 벌어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사례는 만만치 않다.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으로 들어온 IMF신탁통치는 이날 민중의 삶을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리해고의 합법화로 실업자의 수가 800만에 육박하고 있고 거리에는 부랑자,노숙자로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생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생계형 자살자도 늘고 있다. 남편의 생계부양으로 인해 이때까지는 취업의 문이 닫혀 있어도 어렵지 않게 살수 있었던 여성들은 IMF이후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이집의 여성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 집안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을 단순히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정리해고가 시행된이후 정리해고 0순위로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특히 사내커플이거나 아이가 한둘 있는 주부사원인 경우에는 예외없는 정리해고 대상자이다. 기업체에서의 해고 사유는 가장인 남편이 생계비를 벌어오고 있느니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인 가정일에 충실하라는 논리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IMF에 의해 도래된 대량실업사태와 경제불황의 충격흡수증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셋째, 여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상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능이며,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식민지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제국주의와 일부 매관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한 정권의 성립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결정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민중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민중들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게 되며 민중들은 변혁의지를 가지고 의식화, 조직화되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끊임없이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그것의 주요한 방식은 크게 물리력과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다. '여자가 무슨?'여자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논리를 법제도로, 교육으로, 사회관습으로 심어나가면서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인간이 아닌 온순하고 소극적인 인간으로 길들여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인 부분은 남성의 몫, 사회나 정치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신문을 보는 것은 남성들만의 것이고 여성들은 드라마나 보게 만들고, 화장품, 약세사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자꾸마 사회의 모순에 눈뜨지 못하게 한다. 인구의 반이 잠잠해 있다면 지배자들이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용이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자본주의 사회 또한 여성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기본원리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가능한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잉여가치는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긴다. 이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따라서 노동력을 그 가치이하의 가격으로 사는 것,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로 여성의 노동력, 특히 가사노동력(노동력 재생산 영역)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 가사노동력은 분명히 노동자가 내일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안받침 해주는 노동력이다. 만약 이 가사 노동력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밥을 사먹어야 하고 아이들 또한 보육원에 맡겨야 하는 등 만만찮게 많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이 모든 노동력을 주부의 할 일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이 무일푼으로 해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생산이 사회화 되었으면서 유독 노동력 재생산은 사적 영역에 남아있다. 현재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해내는 상품생산노동과는 달리 하찮고 시시한 일로 취급됨

으로써 여성은 집안일이나 하면서 지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력 재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첫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 속에서 2중, 3중으로 착취받고 있다. 식민지 남한 경제구조는 심한 기형성과 종속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대수 여성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당장 생각해 보아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5.60년대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불리는 방직, 섬유, 전자등의 업종에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착취당했으며, 80년대 들어와 제국주의의 분비물인 향락 유흥 산업에 여성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많은 민중여성들에게 노동의 문제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조건속에서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조적'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속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런 사회적 대가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해야 한다.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혈관에 여성 노동력을 구입하게 되고 여성들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모성은 여성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속에서 여성은 단순직 임시직으로 직종을 크게 제한받게 된다. 또한 그나마 열려있는 전산, 교직, 공무원, 통역, 번역등의 제한된 분야에 서조차도 여성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밖에 보장하고 있지 않다.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의 제한은 자본주의 성장품화와 발맞추어 자신의 성을 무기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1980년대 한국 경제 구조변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 부문의 팽창이다. 서비스 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차 산업의 발달은 1,2차 산업의 건설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다소 사업, 금융, 운수, 통신업 등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아니라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비생산적이고 향락적인 서비스업의 성장이었던 것이다. 향락산업이 성장한 배경은 일차적으로 한국 경제의 파행적 구조이다. 1970년대 이후 국가가 무분별하게 향락문화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각종 투기 및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2차 산업에 투자를 기피하는 자본이 향락산업에 투자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 같은 향락산업 중심의 서비스직 부문의 팽창은 곧 많은 여성들이 이부문에 취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생관광이다. 해의 여항 자유화와 73년, 대만과의 국교 단절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다. 그해 일본 관광객수는 전년에 비해 83.3%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특출난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이들의 대부분이 본국에서 '기생서비스가 만점인 남성천국', '한국의 매력', '기생관광'등 한국의 기생관광에 대한 일본내 여행사의 선전이나 한국기생파티의 의 경험을 흥미위주로 그려 놓은 기사들을 보고, '기생파티'의 묘미를 직접 맛보고자 떼지어 몰려온 일명 '색정단'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기생관광을 선호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식민지 종속경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대미 의존적 경제로 재편되었던 한국경제가 65년의 한일협정조인으로 서비스직 종사자 217만 명 중 여성이 61.7%로 134만 명에 이르며, 이들 여성이 취업한 업종은 대부분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기타 사회 개인 서비스업이다. 이 부문에 취업한 여성들의 수요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모두 향락산업에 종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수가 생산직 노동자의 수에 비교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 특유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향락 산업부문의 여성종사자 증가는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성

윤리에 기초를 둔 성의 상품화가 진전됨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절제한 외국문화와 성적 가치관이 유입되어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난다. 특히 이 부문에 여성들을 대부분 소규모이며 불안정한 업체로 노동계약이나 취업 규칙이 전무한 상태에 고용되어 있는 형편이다.

한편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20대 전후의 미혼 여성이다. 서비스업 직무는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지식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여성특유의 회생, 봉사를 강조하며 외모나 연령 등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부문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안정한 형태에 고용되어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밖에 살 수 없는 미국의 속국이라는 현실과 자본주의와 봉건제로 인하여 우리 여성들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 수 밖에 없다. 여성은 조금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애기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는 벅한 것일 수 밖에 없는 3중의 역할(직장인, 주부, 어머니)을 거뜬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인 듯 묘사되기도 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당연히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모성의 기능조차도 여성이 혼자 담당해야 하고, 모성을 이유로 사회적 자기 실현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또한 2천만 남한 여성의 현실이기도 하다. 즉 여성의 열등함을 끊임없이 유포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2중,3중의 모순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하기에 여성문제란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는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말한다.

(2) 여성운동의 주체를 밝혀내고 있다. 여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다. 여성은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을 변화 개조시켜나갈 변혁의 주체이다. 그러하기에 여성은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변화 개조시켜나갈 주체, 여성운동의 주체로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모순과의 투쟁이 바로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바로 운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적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의 본질상 여성이 겪고 있는 모순을 여성스스로가 인식하며 여성자신의 힘에 의하여 풀여가는 운동이다. 여성은 오랜기간 봉건적 억압과 지배속에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 관습적인 길들임속에서 계급에서 소외되고 사회의 주인이기 보다는 부차적인 존재로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다. 그런가운데서도 여성은 변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전체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지배사회속에서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했다. 자주적 여성운동은 여성의 올바른 자리매김-여성의 자주성의 옹호와 실현을 중심에 두고 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명확히 하였다.

(3)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과정과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문제는 인간 개별개별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지배역사와의 연동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방 사회의 조건에 따라 여성해방을 달성해가는 과정또한 각기 다양하다. 자주적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 그리고 유교적 문화와 결합된 가부장제를 그 억압의 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여성해방이란 이러한 식민지와 자본주의와 이와 결합된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여성의 올바른 자주성의 실현 넘겨가 평등하고 사람의 자주성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해방 인간해방으로 가는 경로는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의 주체가 되는 방향에서 여성 스스로의 요구속에서 자주적인 여성조직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여성을 여성 운동의 주체로 만들고 강력한 여성운동 역량을 축적하여 또한 사회변혁을 여성해방을 이루는 물질 기초를 만드는 (여성해방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함께 통일적으로 또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해방과 인간해방의 과정과 경로이다.

2.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우선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을 하나하나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학생운동의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여대생의 존재와 특성은 일차적으로 남한 여성으로서의 처지와 실정에 의해 규정된다. 남한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매판세력에 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소외와 법적 무권리 상태에 있다. 또한 제국주의하에서의 산업의 수직적 재편과정을 통하여 미,일 독점자본에 예측되어 있는 경제구조속에서 세계 제일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략, 우민화 정책으로 제국주의의 문화침탈에 의하여 퇴폐향락의 사회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여성들은 성상풍화,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 여성의 처지는 여대생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첫째로, 여대생은 식민지 근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기 보다는 지배체제 논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8,90년대 초반의 여대생들은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기층여성 민중들에 비해 특권의식을 가지며, 결혼을 통해 계층상승을 꿈꾸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다수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제일주의'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대생은 여타 계급계층 여성들보다 결혼을 통한 계급 상승이 보다 쉬운 조건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여 소비적인 인간형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1등 공신으로 여대생이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대학생과 결혼하더라도 계층상승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볼 때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의 욕구는 허황되기 지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이러한 허위의식은 청년학생 본연의 임무인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었다. 민족의 삶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지배자의 의도대로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자기도 여대생이 자기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한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결혼으로 매꾸어 가기 보다는 자신의 직업으로 매꾸어 간다. 그래서 대학 1,2학년때는 미팅이나 연애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공부나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둘째로, 여대생은 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의식을 주입받고 일정정도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 학문활동, 정치활동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원 내에서의 남성 위주의 문화풍토, 공간 등에 의해 부채질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여대생들이 받는 교육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보건의제 논리에 의해 여성들의 소극성과 순결이 강조되어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순결학과가 개설되어 여성의 순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받는다 하더라도 또한 대학을 자신의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고 대학을 다니고 교육 또한 사회진출의 중간고리로 여기며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교육 때문

에 지금 시기의 여대생들은 자신의 전망을 밝히는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셋째로, 여대생은 남한 여성이 당하는 경제적 착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 진출에서부터 여대생을 좌절시킨다. 대학을 상품화시키려는 사회와 자본의 논리와 예비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급증을 통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통제를 기도하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한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 여성노동착취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여대생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89년 50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중 여성은 4.1%에 지나지 않으나 전체 여성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식의 어려운 취업 이후에도 여성차별과 수모, 승진 기회의 박탈, 모성보호의 소홀 등은 여성을 직장에서 가정으로 강제로 쫓아내어, 여성은 평생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문제를 알고 있는 여대생은 그 존재로부터 해방의 동력 또한 갖고 있다. 여대생의 문제가 원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희생된 문제이므로 이 억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여대생은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가장 민주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높은 정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의 위치는 여성해방을 통해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조건을 부여해주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옮겨 이해한다면 잠재된 혁명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체의 노력(활동)'을 운동이라한다. 따라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여학생 운동을 달리 말한다면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 요소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쳐나가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활동"이라 하겠다.

결국 여학생운동은,

첫째, 남한 사회에 현존해 있는 성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해서 여성적 행동을 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 해서 남성이 희생된 문제이므로 이 억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여대생은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가장 민주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노끈 정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의 위치는 여성해방의 도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조건을 부여해주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잠재된 혁명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둘째, 지배 계급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여성억압을 없애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여성의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했다.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 전략의 한 부분으로 여성을 이용하고 유지해왔다.

셋째, 민족 모순속의 여성이 처해 있는 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목표를 이루지않고는 어떠한 여성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이루어 낼 수 없다. 지금 한반도 내의 여성문제는 성모순이나 계급 모순 등 한 두가지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성격에서 비롯되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억압과 침묵의 요인에 대항해 나가는 운동이다.

넷째, 학원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의식과 구조의 철폐를 통한 학원내의 민주화의 실현, 이 네 가지를 자기 지향으로 하는 운동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여학생 스스로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건설을 통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운동이다.

20여년 이상씩 받아왔던 남녀차별주의적 내용의 교과과정을 일소해야 할 목적이든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학원에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상시키고 여학우들의 자주적 사회진출의 요구와 이해를 받아안아 평등한 기회를 보장시켜줌과 동시에 가 계급계층 여성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여성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계급 타도투쟁이 조국통일 투쟁으로 이어져야 하는 몫을 가지고 있다.

3.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

운동의 목표는 모순된 사회의 변혁이다. 현재 사회의 모순은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민중을 착취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현 운동의 목표는 미국에 의해 예측되어있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과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자들로부터 억눌린 자주성을 되찾는 사회변혁 운동의 방도는 오로지 민중이 주인되어 벌여내는 투쟁, 압도적 다수의 조직된 힘으로 지배자들을 포위할 수 있는 대중투쟁이다.

사회변혁운동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운동은 여성이 직접 당하는 여러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는 운동이다. 이것이 확대되어 전체 사회의 변혁을 이룬다.

물론 부문운동이라고 하여 눈앞의 요구에만 이끌려서는 결코 사회근원적 억압을 철폐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회변혁을 성사시킬 수 없다. 하지만 부문운동이 그 민중에 기초하지 않으면서 사회모순으로부터 부문의 모순이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전체사회변혁운동만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여성운동에서도 그러하다.

여성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한 통일투쟁, 6월 항쟁의 기폭제였던 최루탄 추방투쟁, 성폭력 추방투쟁, 참정권 투쟁...등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성들의 조직적 운동이 전개되지 않고는 여성운동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어떻게 자리잡아 나가야 하는가?

첫째,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은 결코 남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의미로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운동내에 상대적 독자성-여학생의 이해와 요구로 인해 독자활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을 가지는 하나의 부분으로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청년학생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그 기치아래 여학생 또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여학생의 독자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학생의 내용을 견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학생운동이다. 이는 아직 우리 운동의 지향인 진정한 인간해방의 의미속에 남녀평등 실현의 의미가 실천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절반, 여성 모두가 개별적 차원에서 각종 여성 차별적 요소를 넘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 차별 사회 현실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체여성이 여성문제를 우선적으로 받아안고 해결해야 한다. 전체 사회변혁을 지향되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증착된 문제를 조직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이는 계급모순 혹은 민족모순이 해결된다고 여성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여성문제해결은 사회모순해결의 의지없이 완수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4.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청년여학도의 임무와 역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여학생운동의 전개양상에 있어서 조직화의 형태는 여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임을 전제로 한다. 상층만 존재하고 있는 조직은 아무리 뛰어난 간부가 사업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대중으로부터 강제받을 수 없으며 대중과 괴리된 사업을 전개할 수 밖에없다. 또한 대중조직을 건설해내고 그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의 투쟁속에서 조직이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도부는 대중투쟁을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내고 여성운동의 역량을 축성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여성문제에 대한 여학우들의 인식이 증대되고 사회의 변혁전 조건이 마련되면서 여성운동의 객관적 여건이 나아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여학생운동이론으로 무장하고 여성운동을 이악스럽게 풀어나갈 주체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다. 올바른 여학생운동이론으로 무장하고 여학우중심의 확고한 대중관과 철저지 사회변혁과 여성해방과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진 여학생운동 역량을 마련하여 여학생운동의 중심인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50만 여학우 2천만 여성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드는 선봉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해방의 길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요원하고 막연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여학생운동의 실천을 통한 자신감을 얻으며 한발한발 앞장서 가자.

토론포제

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에 대하여 궁금한점 내지는 이해가 안되는점을 서로 질문해보자
한국사회의 여성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그 근본원인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현시기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의 절박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여학생회 건설 강화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에 입각한 대중투쟁

-전체운동과의 관계등

이현동장의 구호 : 지적하자.

내가 주동자고. 여학생운동 할까 자선자 자선자 없다.

주주-너무 대담자. 용제는 느끼지만 그것은 끝난.

내손으로 만드는 50만 여학우 조직
전여대협 상반기 총화를 위한 설문지

(서) 여대협 (경기) 학교 역할(총여회장) (96) 학번 이름(김리연)

1. 자신평가

(1) 올해 여학생운동을 하게된 과정은 무엇이고 2000년 자기 계획은?

원래 3학년 때부터 총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생활상황상 과달위기에 닥다가 ~~총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올해 총여에서 일하고 싶다는 결의를 하고.

나에게 막연했던 여학생운동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첫 시작. 그만큼 자주. 4학년 운동장을 설명하시게 하.

(2) 올해 자신의 지위는 무엇이었고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총여회장. 1조
대표로서 여러저러 하게 살아가고 싶어 결의하며 살았다. 그러나 총여의 정황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함께 하

(2-1) 올해 함께하는 단위 조직생활 참여 정도는요

-조, 종례 및 회의시간 엄수와 구체적 기여도

조장을 순회하는 4강으로서 정회부는 결의해 내를 때 일장 어려움.

(2-2) 자신이 생활하는 단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분공 또는 역할 수행 정도는요

(2-3) 동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었나요

(2-4) 여학우들 및 기층에 있는 여학생회 간부들과의 만남은 어떠했었나요?

자기 대중이 있다면 자기대중과의 만남도 이야기 해주세요

(2-5) 올해 학습(여성학 및 개인학습 모두포함)은 어느정도 진행했습니까?

(2-6) 올해 상반기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2-7) 올해 상반기를 살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점, 성과적이었던 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2-8) 자신의 단점을 고치거나 더 잘살기 위한 자신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2. 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

(1) 전여대협과 지역여대협에 대하여

1)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읽어보셨나요

2) 올해 자신이 참여해본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사업과 투쟁 전부 써봅시다.

3)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사업을 풀어가는데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4) 전여대협과 지역여대협에 바라는점

(2) 단위 대중 사업

1) 올해 단위의 사업계획서 총노선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주요과제를 무엇으로 두었나요

2) 진행한 대중사업과 투쟁이 있으면 전부 적어주십시오

3) 단위에서 사업과 투쟁을 펼쳐가는데서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4) 성과적이었던 사업을 적어주세요

(3) 조직사업

1)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단위의 조직 역량 파악

2) 기층 조직 건설과 강화를 위한 계획은 어떠했으며 그 실현정도

3) 올 상반기 여학생회 주위로 얼마나 많은 새내기 및 여학일꾼이 모였나요

4) 여학생회 조직이 잘 건설되지 못하고 일꾼들이 모이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여대협 수련회 3일간의 멋진 만남

하/루/총/화/서

나는 누구인가요 _____

2000년 7월 23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과 자신의 계획	오늘의 성과점	한계점과 혁신과제
2000년 7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일정과 자신의 계획	오늘의 성과점	한계점과 혁신과제
2000년 7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일정과 자신의 계획	오늘의 성과점	한계점과 혁신과제
전반적인 평가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가장 큰 수련회의 성과	아쉬운점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이후 후속작업	자기혁신과제